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프로젝트 선정작 공개

국내 4편 · 해외 4편 프로젝트 기간내 피칭 행사... 각 1편 선정해 최대 1억원 제작비 지원

전주국제영화제가 23일 제15회 전주프로젝트 선정작을 공개했다.

전주프로젝트는 모든 장르와 포맷을 아우르는 영상 콘텐츠의 제작 및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산업 프로그램이다. 앞선 전주프로젝트를 통해 공개된 대표적인 작품에는 이승원 감독의 '세자매', 이창재 감독의 '노무현입니다' 등이 있다.

다양한 한국영화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획 개발 멘토링 프로그램인 '전주랩'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전년 대비 11개(11.9%) 증가한 104편을 접수하며 마감했다.

올해 전주랩에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AMOS', '삼희: The Adventure of 3 Joys', '정원', '터치', '고개 속인 신부', '기계의 나라에서', '레드 데이터', '손님노동자', '서리다', '식물' 등 10편이다.

선정된 '영상콘텐츠프로젝트' 8편과 '전주숏프로젝트' 2편은 각각 기획개발비와 제작지원비 500만 원을 지원받고 3개월간 집중 멘토링을 받는다. 이후 '영상콘텐츠프로젝트'의 프로젝트들은 최종 심사를 통해 2차 기획개발비

(총 2000만 원) 및 현물을 차등 지원 받고, '전주숏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작품들은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전주시네마 프로젝트: 넥스트 에디션' 참가자를 공모했다. 그 결과 국내 29편, 해외 21편의 프로젝트가 접수됐다. 전년 대비 9편 증가한 수치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국내 4편, 해외 4편의 프로젝트들은 전주프로젝트 기간 내에 열리는 피칭 행사에 참가한다. 최종 심사를 통해 국내·외 각 1편의 프로젝트가 '전주시네마프로젝트'로 선정돼, 각각 최대 1억 원의 제작비를 투자 받게 된다. 이들 두 편은 선정작은 완성 이후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소개될 예정이다.

올해 피칭 진출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문창용 감독의 '나디아', 선호빈 감독의 '돈 다큐', 강유기 감독의 '럭키, 아파트', 고봉수·노경근 감독의 '슬랩뱅'이다.

해외 프로젝트 4편은 카를로스 카사스 감독의 'Krakatoa', 부라크 체비 감독의 'Nothing in

Its Place',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국제경쟁 부문에서 심사위원특별상 수상했던 에두아르도 윌리엄스 감독의 'The Human Surge 3', 마 설 감독의 '기인 Alessia'이다.

한국 독립예술 영화의 완성도 향상 및 국내외 배급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된 '워크인프로그레스'는 지난 1월 3일부터 1월 30일까지 극영화 부문과 다큐멘터리 부문 러프컷 단계의 참가 프로젝트를 공모해 총 28편의 작품을 접수했다.

장르 구분 없이 총 3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참가작으로 김태양 감독의 '미망', 박정미 감독의 '담을 입은 사람', 양주연 감독의 '양양'이 결정됐다. 이들 작품은 전주프로젝트 기간 동안 해외 프로그래머 및 국내외 산업 전문가를 만나 피드백을 받게 되며, 심사를 통해 우수작 1편에 선정된 작품에 5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SIM문화재단과 전주국제영화제가 운영하는 완성도 높은 한국 다큐멘터리를 위한 편집 교육 프로그램인 'K-DOC CLASS'에는 김현빈 감독의 '동그랗고 뽀족한'과 김종관 감독의 '위선의 불꽃' 등 2편이 선정됐다. /뉴시스

국립남도국악원 대표 작품 '섬' 남원 온다

3월 3-4일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서 무료 공연

국립남도국악원(진도)의 대표 작품 '섬'이 오는 3월 3일과 4일 양일간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펼쳐진다.

'섬'은 지난해 창작 초연한 작품으로, 국립남도국악원 초연 공연과 국립국악원(서울) 초청 공연을 통해 일반인은 물론 예술평론가들에게도 큰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내용은 살아가기 녹록치 않은 '섬'이라는 공간에서 거친 파도와 바람, 자연과 싸우며 때론 그것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가족 이야기와 함께, 격동의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함께 담담하지만 진솔하고 묵직하게 그려 나간다.

특히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내외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점은, 90분간 펼쳐지는 수많은 노래와 연주, 그리고 극의 전개와 흐름을 위한 음악적 표현을 진도와 남도 지역의 토속민요와 음악적 소재를 적극 활용했다는 점으로, 쉽지 않은 전제와 시도



를 통해 마침내 별도의 창작음악 없이 민속음악만으로 다양한 음악적 색채감을 구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작품 연출의 일관된 방향성과 높은 예술적 성숙을 이루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순회 공연은 3월 3일 오후 7시 30분과 4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무대에서 각각 무료로 선보일 예정이며, 예약은 전화(063-620-2319)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제주대 해양스포츠센터 '맞손'

전통놀이 문화 진흥 · 확산 협약 체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23일 4층 세미나실에서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부설연구소인 해양스포츠센터(센터장 김덕진)와 전통놀이 문화 진흥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놀이 문화 콘텐츠 제공 및 활용 △시설의 이용 및 편의 제공 △기타 다양한 교류와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26년 '전통놀이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현재 전통놀이를 스포츠화 하기 위한 20여개 정도의 모델을 개발, 뉴트로 스포츠로 상표를 등록한 상태다. 향후 전당과 협업을 통해 자격 연수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태범 센터장은 "전통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센터의 '뉴트로 스포츠', 그리고 전통놀이 문화에 대한 전당의 노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도영 원장은 "전통놀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해양스포츠센터와 손을 맞잡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전통놀이를 체계화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바른' 출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바른(bareun.ai)'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바른'은 7800만건의 뉴스데이터와 80만건의 언어사전을 학습시켜 만든 형태소 분석 엔진이다. 옳다는 의미의 '바른', 문장에서 형태소를 '발라낸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재단은 한국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언론 영역에 최적화된 형태소 분석기 개발을 위한 데이터 선별·정제·학습 과정을 거쳤다. 빅카인즈의 199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뉴스 기사 7800만건을 정제해 1억여점의 말뭉치를 학습시켰다. 개체명·신조어·복합명사 등 빅카인즈 언어사전의 80만 단어와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300만 여점, '세종 말뭉치' 1200만 여점을 추가했다.

최근 '챗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언론사 자체적인 기술 개발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재단은 2021년부터 '언론사를 위한 언어정보 지원 개발'을 추진했고 형태소 분석기 '바른'을 만들었다.

'바른'은 문맥과 의미를 고려한 맞춤법 검사와 혐오 표현 검출·순화, 적절한 단어나 표현 추천 등 언론계 AI 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R·파이썬·자바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된다. 활용을 원하는 언론사와 연구자, 국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뉴시스



제92회 춘향제 춘향제향 모습

'제93회 춘향제' 화려하게 펼쳐진다

5월 25-29일 개최 기본계획 확정... 4개 테마별 다양한 공연·전시 진행

남원시(시장 최경식)와 춘향제전위원회(위원장 이광연)가 제93회 춘향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사회적 제한들이 풀리면서 예전의 화려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춘향제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며 민선8기 첫 춘향제라는 점에서 역대 춘향제보다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질 계획이다.

춘향제는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꼽힐만큼 전통이 있고, 내용면에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예술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제93회 춘향제를 통해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민선8기 시정비전인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남원의 역동적인 미래상과 시민의 바램을 축제 전반에 담아낼 계획이다.

이번 제93회 춘향제는 △전통과 첨단 빛,

△사랑과 낭만의 길, △먹거리와 국악의 흥, △공연과 체험의 맛이라는 4개의 테마로 진행될 계획으로 테마별 다양한 공연과 전시로 풍성하게 채워놓았다.

특히, 이번 춘향제에서 주목할 점은 춘향제기간 남원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할 빛이다. 광한루는 미디어파사드와 만나 화려하게 변신하고, 요천엔 첨단조명으로 반짝이는 별과 달이 하늘을 밝히고, 강 위에는 연인들의 사랑을 담은 수백개의 LED종이배가 띄워질 예정이다.

요천 벚꽃길과 둔치 주변에는 꽃등과 갈대조명이 설치되어 그 은은함을 더할 것이고, 개막식과 다음날에는 불꽃과 드론이 펼치는 야광쇼가 화려함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